지난해 경주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방문객이 즐겨찾는 황리단길. 경주시

"경주 황리단길 구경 가자" 외국인 관광 100만 명 돌파

경상북도 경주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이 지난해 100만 명을 돌파했다. 14일 경주시와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주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111만468명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경주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이 한 해에 100만 명을 넘은 것은 2024년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방문객은 2022년 16만7570명, 2023년에는 92만6542명이었다.

국가별 방문객은 중국, 대만, 일본, 러시아, 홍콩, 미국 순으로 많았다.

시는 올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개최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방문객 100만 명 시대를 더 확고히 할 방침이다.

APEC 정상회의는 세계 주요 경제권의 지도자와 미디어가 경주를 주목할 기회로 보고 이를 활용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게 시의 목표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혁신적인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 국제건축설계공모 시작

부산광역시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외 신생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부산항 북항 제1부두에 조성 중인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의 국제건축설계공모에 들어갔다.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인프라 트윈 허브' 정책에 따라 전 세계 창업가·투자자 및 창업지원가 등이 모여 상시 교류를 통해 혁신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은 작년 7월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시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하고 부산국제건축제 조직위원회가 공모 관리를 맡아 진행한다.

시는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이 부산항 개항(1876년) 150주년이 되는 해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이번 공모를 통해 부산항 제1부두의 피란수도 부산 유산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기존 건축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설계안이 발굴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은 총 사업비 약 308억 원(설계비 12억 원)·연면적 9128㎡ 규모로 계획 중이며 업무공간·역사문화공간·소통공간·지원공간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국내외 건축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총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지명신청 공모를 통해 지명 건축가를 선정하고 2단계 지명 건축가만 참여하는 제안 공모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1단계 공모는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가는 신청서를 작성해 공식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2월5일 발표된다.

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위치도. 부산시

구미, 미래농업에 역대급 1668억 원 투입

청년 농업인 육성·스마트원예 부문에 집중
벼 재배면적 조정제 펼쳐 고품질 생산 박차

구미시가 미래농업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대전환을 선도한다.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가 13일 '역대 최대의 농업분야 예산 1668억 원(전년 대비 11.6% 증액)을 투입해 농업환경의 고령화·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나갈 시책'을 내놨다.

14일 구미시에따르면 올해 추진사업은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미래 농업 선도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및 외국인계절근로 확대 △고품질 쌀 적정 생산 및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스마트원예로 잘 사는 미래 농촌 육성 시책이다.

구시는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과 협력해 맞춤형 집합교육과 2030 청년농업인 1000명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스마트팜 기술과 농업경영 전략 등을 목표로 '농업 창업자금과 정착지원·스마트농업 기술 교육·유통망 구축 및 브랜드화·주거 환경 개선'이 포함돼있다.

'청년 농업인 육성으로 미래농업 선도'를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창농기반 구축 △농지임대료 지원 △청년농부 멘토링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등으로 확대·추진된다.

올해 신규 사업은 청년농부 컨설팅(2000만 원)·맞춤형 창업 지원(2억 원)·영농정착시설 지원(2억 원) 등이며 16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미래 농업 인력이 육성된다.

'2025년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 공모사업'에는 지역 3개소가 선정됐다. 해평면은 소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무을·도개면은 농번기 중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2세~초4년)이 운영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2024년 46명에서 2025년 115명으로 외국인 근로자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품질 쌀 적정 생산 및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이 정책은 지역 내 전제 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른 감축목표 재배면적이 적용된다.

시는 벼 재배 감축을 위해 논 타 작물 전환에 2억9000만 원과 전략작물직불제에 16억5400만 원을 투입하고, 특히 전략작물 직불제는 하계조사료와 밀의 지급 단가를 각각 ha당 500만 원(증 70만 원)·100만원(증 50만 원) 인상해 농가참여를 유도한다.

단,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와 지자체에는 쌀 관련 정책 지원이 제한되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올해부터 논에 전략작물을 이모작 할 경우 종자대 일부를 지원하는 논 작부체계 개성지원 사업에 3900만 원·농기계 스마트화 장비구입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한다.

'스마트원예로 잘 사는 미래 농촌 육성' 시책에는 대체과수품목육성(3억5000만 원)·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1억7600만 원)·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1억1300만 원) 등과 고품질·고소득 작목육성 원예작물(6억4200만 원)과 친환경 과일생산기반 조성(1억4900만 원) 등 농가 밀착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장호 시장은 "청년농업인과 지역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기자 chlee2@skyedaily.com

부산, 취약계층 지원금 쾌척… "설 명절 더 따뜻하게"

독거 노인 1인당 5만 원 전달
경로당 2424곳엔 20만 원씩
BNK그룹, 5억 원 상당 성금
16개구·군도 자체 계획 수립

부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2025 따뜻한 설 명절 보내기'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부산시

부산광역시가 설 명절을 맞아 '2025 따뜻한 설 명절 보내기'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설 명절을 맞아 주위의 이웃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누며 '내게 힘이 되는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시는 13일부터 24일까지 설 명절 전 2주간을 '따뜻한 설 명절 보내기'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시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훈훈한 정 나누기를 실천한다.

이에 시 간부 공무원과 시 본청·사업소 전 부서를 통해 85개 사회복지시설에 성금과 성품을 전달한다.

또 노숙인 시설 4곳에 차례상 경비를 지원해 고향에 가지 못하더라도 합동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하고 홀로 사는 노인 3만2000가구에는 1인당 5만 원씩 명절위로금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설에는 경로당 2424곳에 한시적 특별운영비를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시내 유관기관도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보내며, 훈훈한 추석 명절 보내기에 동참한다.

BNK 금융그룹은 부산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1만 세대에게 생필품 꾸러미 총 5억 원 상당의 성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쪽방 상담소 거주자 1만 세대에 세대당 10만 원씩 총 10억 원의 명절 생계비를 지원한다.

대한적십자사부산지사도 저소득층 2300가구에 총 5700만 원 상당의 영양밥 세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 16개 구군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지역 주민을 위한 설 명절 온정 나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설을 맞아 여러 곳에서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이 평소 닿지 못했던 곳까지 온정의 손길이 되어 전해지고 있다"며 "시와 구군·유관기관·단체는 매년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올해도 내실 있게 추진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

기장 일광유원지 주변 '기후대응 도시숲' 탈바꿈

녹지 확충·미세먼지 저감 목표
10억 원 투입 7월 중 1ha 완공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이 추진중인 일광유원지 위치도.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일광유원지 야구테마파크 주변을 중심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청 국시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과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목표로 국비 5억 원·시비 및 군비 5억 원을 투입한다.

군은 해당 녹지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과 도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수목을 집중적으로 식재해 기후대응 도시숲 1ha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1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3월 중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용역을 준공하고 5월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해 7월 중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에 조성되는 도시숲이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탄소흡수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하여 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종복 군수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오시리아 수변공원 일원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

부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간담회 성료

부산광역시가 13일 시청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부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부산혁신도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와 이전 공공기관의 상생 발전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시장을 비롯해 부산혁신도시(동삼·문현·센텀혁신지구)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과 기술보증기금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 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국립해양조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예탁결제원·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남부발전,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삼·문현·센텀혁신지구가 모여 국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혼란한 국정 상황 속에서도 공공기관들이 '부산 원팀'으로 이뤄낸 성과를 돌아보고 해양·금융·영화 영상 등 부산 핵심 산업의 발전 방향과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들이 공공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동삼혁신지구'는 글로벌 해양 중심도시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해양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다지고 '문현혁신지구'는 디지털 금융 혁신 등 국내외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부산이 글로벌 금융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센텀혁신지구'는 영화·영상도시 부산의 문화적 브랜드 강화와 함께 영화·영상·게임 등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해 명실상부 세계적인 영상콘텐츠 거점으로 성장했다.

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